

行政誘導로

使用量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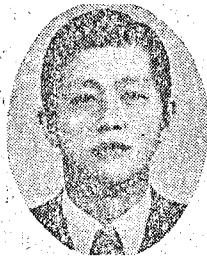
설탕의 기원은 인도 지역이라 하며 인류는 2300여년 전부터 식용 하였다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000여년전 부터 극소수의 특수층에서 기호품으로 식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해방전만 하여도 상류 특수층에서만 식용하던 귀중품인 설탕이 1953년에 제당공장의 건립과 더불어 일상의 대중식품으로 보급되었으며 국민소득의 점진적인 향상과 이에 따른 식생활의 향상, 특히 각종 과자류, 다류, 청량음료수, 병과제품등 기호 식품의 소비증가로 설탕의 사용량은 격증하였으며, 아제는 식생활에서 불가분한 필수식품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탕의 원료는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여기에 소비되는 외화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상 가상으로 자원경쟁에 돌입한 근간에는 국제 원당가의 폭등으로 설탕 소비에 따른 외화의 지출도 급증하여 1974년에는 약 1억5천만불이나 되어 73년보다 약 3배나 더 많은 외화를 지출한 셈이 된다.

이와 같은 설탕의 소비는 국민 소득향상에 따라 점차 증대할 것이며 실제로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후진국 보다 설탕 소비량이 많다. 이를 국민소득과 설탕섭취량과 소득에 의한 설탕 소비 지출을 본다면 표 2와 같이 국민소득과 설탕의 소비량은 비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설탕의 소비량은 그나라의 부강을 표시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설탕 소비량은 아세아지역 평균 소비량 8.6kg에도 미달되며 세계 평균 20.3kg



宋錫勳

〈국민보통업표준시험소 식품과장〉

<표 1>

설탕소비량과 외화지불액

년 도	설탕생산량	국제원당가격 (\$/T)	외화지출액(\$) (수출비제외)
1971년도	215,625	121.9	26,284,687
1972년도	195,100	158.68	40,296,786
1973년도	253,950	176.4	44,796,780
1974년도	200,750	764	153,373,000

자료: 상공통계월보

<표 2>

소득별 소비량과 지출비율

나 라 별	국민소득 (\$)	1인당설탕 소비량 (kg)	소매가격 (\$)	소득에 대한 설탕소비지 출비율(%)
미 국	4,575	50.3	0.3	0.33
카 나 다	3,769	47.0	0.35	0.42
서 독	3,168	48.0	0.34	0.56
벨 기 에	2,726	38.8	0.37	0.52
영 국	2,249	52.3	0.26	0.6
호 주	2,116	55.3	0.28	0.73
프 랑 스	1,963	33.8	0.29	0.5
일 본	1,900	30.4	0.49	0.78
한 국	304	6.8	0.60	1.34
파키스탄	127	4.9	0.25	0.96
아시아지 역 평균	—	8.6	0.31	—
세계평균	—	20.3	0.27	—
세계최고	—	69.1	0.62	—
세계최하	—	0.8	0.08	—

자료: 72년도 통계 (1973년도 발행 日本ポケット砂糖總
計 및 1974년도 발행 동아연감)

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하위 그룹에 속한다. 세계에서 가장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는 -루공화국 69.1kg, 이스라엘 64.7kg이며 가장 적게 섭취하는 나라는 구완다. 뱅그라데쉬 등의 0.8kg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설탕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하며 국민소득에 비한 설탕소비지출이 1.34%로서 외국의 0.5~0.6%에 비하여 약 2.5배가 되며 식생활에 지출되는 비용은 소득의 50%라 생각한다. 결국 우리는 식생활에 사용되는 가계비중 2.7%를 설탕소비에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에서 생각한다면 아무리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가져와 국민소득이 향상

되었다 하더라도 분수에 맞지 않게 설탕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당장 배를 채울 기본 양식마저 모자라는 형편에서 달콤한 맛에 유혹되어 피맘홀려 벌어 놓은 외화를 흘려 버린다는 것은 국민 스스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우리는 설탕의 소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여야만 소득에 대한 설탕의 소비지출이 균형을 이루어 타산이 맞는다는 이치가 성립된다.

그러나 설탕이 단순히 감미원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양소이며 탄 식품에 비해 소화흡수가 빠르고 열량으로서 전환이 빨라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에게는 중요한 영양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요한 영양소인 설탕의 섭취를 줄일 때 국민건강 관리 및 체력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구 사람과 달라서 전분질 식품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탄수화물인 설탕의 섭취를 줄인다 하더라도 영양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이며 단맛을 위주로 한 기호식품, 특히 과자류의 감미원으로서는 전분질을 원료로 한 포도당, 물엿, 기타 전분량으로 최대한 대체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일부 식품에는 값싼 인공감미료의 사용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참고로 우리의 식생활과 유사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감미자원 사용실태를 본다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설탕의 사용량과 전분량의 사용비율이 5:1인데 반하여 우리는 30:1의 비율이며 인공감미료의 사용인 경우 300:1인데 반하여 우리는 400:1의 비율이다. 이를 다시 설탕 감미료 환산할 때 일본은 총 설탕 소비량의 5분의 1인 8만여톤의 감미를 인공감미료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하여 볼 때 우리는 가장

표 3 설탕과 기타 감미료의 사용비율

		총소비량 (%)	대수요치 사용비율(%)			
			가정용	제과	빵	청량음료
설탕	한국	195,100	32	35	16	7
	일본	2,962,427	21.65	33.57	4.35	17.72
전분량	한국	6,847	—	23.4	30.2	7.4
	일본	561,589	0.01	30.46	11.73	7.5
인공 감미료	한국	684	—	—	—	—
	일본	9,160	—	—	—	—

자료: 식품공업원료 및 식품첨가물과 국산화방안에 관한 연구(1972년 과학 기술처 발행)

에서나 가공업체에서나 일본보다 설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의 원인으로서는 현재 포도당의 생산량이 적을 뿐 아니라 가격이 설탕보다 비싸다는데(설탕감미료 환산할 때)에 있으며, 또한 근간 인공감미료의 유효성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흔히 청량음료나 기타 인공감미료의 첨가가 범적으로 허용된 식품에도 순설탕제품이란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여러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현재 설탕의 섭취량이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떨어지는 편이며, 아세아 평균수준에도 미달하는 형편이나 우리의 소득에 비한 설탕의 소비지출은 세계에서 으뜸간다. 따라서 우리가 설탕을 충분히 섭취하여도 개인살림이나 나라살림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 소비를 절약하여 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설탕의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정에서 소비하는 양을 특히 전체 가정용 소비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도시 가정에서의 설탕의 소비를 정부기관, 부녀단체 또는 「메스쿨」의 계몽을 통하여 줄이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대량소비치인 제과, 제빵, 청량음료의 감미는 10~20% 정도 줄이도록 하거나 설탕대신 전분량이나 인공감미료로 대체 사용하도록 행정적인 유도를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 제빵업의 주종품인 과자 빵(단팥빵, 크림빵, 카스테라 등 감미가 많은 것)의 생산을 줄이고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빵 생산비율을 증가시키므로써 설탕 절약 뿐만 아니라 식생활개선, 국민체력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다류의 개발과 이의 보급이 긴급하다. 해방후부터 증대된 커피, 홍차 등 쓴맛을 조화시킬 즉 설탕을 첨가하여야만 음료를 할수 있는 다류의 응용증가로 이에 소비되는 설탕량도 막대한 것이며 일부 도시인의 장기 음용자와 같이 설탕을 적게 넣고 차의 풍미를 주로 애용하는 사람보다 대부분 아직 커피나 홍차의 기호성이 정착되지 않은 지방 사람이나 서민층에서는 설탕의 단맛을 위주로 애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같이 설탕을 첨가하여야 마실 수 있는 다류의 응용을 줄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감미보다 풍미와 영양을 위주로 한 각종 다류의 개발보급이 긴급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풍토에 적응되는 설탕원료, 즉 사탕수수나 사탕무 기타 감미자원을 개발하고 개량하여 재배토록 관공기관, 학계의 연구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하므로써 국산 감미자원을 확보하여 외화의 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므로써 80년대를 향한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이다.